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754.4	18.7	131,000	1.6	-6.4	-6.3	36.5	91.3	43.8	0.6	0.6	0.7	1.4
현대로보티스	7,206.8	21.4	442,500	0.7	-4.4	10.5	16.1	6.0	5.0	0.8	0.7	14.1	14.7
현대알렉스트릭	923.6	6.9	90,500	-2.9	-29.6	-25.8	-20.6	8.6	7.5	0.8	0.7	9.3	9.7
현대건설기계	1,679.0	8.9	170,000	-2.0	-16.7	-7.4	0.6	10.8	8.0	1.2	1.0	11.7	13.9
삼성중공업	3,334.5	18.5	8,550	-0.6	-8.8	-30.2	16.6	53.9	26.7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666.4	5.2	25,000	0.2	6.6	39.3	79.9	10.5	9.5	0.6	0.6	5.6	6.0
현대미포조선	2,180.0	13.3	109,000	1.9	-2.2	16.6	38.5	23.5	17.0	0.8	0.8	3.6	4.8
한진중공업	355.3	6.7	3,350	-1.8	-10.1	-8.0	1.2	67.4	16.8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445.9	36.5	58,700	0.9	-3.8	13.3	7.9	10.4	10.1	1.4	1.3	14.6	13.3
두산밥캣	3,408.5	27.3	34,000	-1.4	-6.5	0.6	-5.0	12.5	11.7	1.0	0.9	7.4	7.6
현대로템	1,313.3	25.3	15,450	-1.0	-10.2	-17.2	-17.6	19.9	13.6	0.9	0.8	4.5	6.3
하이록코리아	335.6	48.0	24,650	-1.0	-8.2	0.7	9.6	11.2	10.2	1.0	0.9	8.8	9.0
성광밴드	351.8	15.8	12,300	-0.8	1.7	21.2	23.2	1,087.3	44.1	0.8	0.8	0.1	1.8
태광	390.9	16.3	14,750	2.1	2.1	33.4	22.4	88.1	43.0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591.6	9.7	14,950	-1.3	-10.5	-6.6	-2.6	11.5	9.3	0.5	0.5	4.3	5.2
두산인프라코어	1,944.1	14.2	9,340	-4.0	-16.2	5.2	7.5	8.3	7.4	0.9	0.8	11.6	11.5
두산엔진	299.2	4.3	4,305	-0.8	-3.4	-13.9	16.8	-119.2	94.6	0.6	0.6	-0.5	0.6
한국항공우주산업	4,903.0	17.6	50,300	-2.5	-2.7	2.5	6.0	33.9	24.3	3.7	3.4	11.2	14.1
한화테크윈	1,533.3	13.6	29,150	0.9	-13.4	-14.4	-18.0	22.2	14.6	0.7	0.6	3.1	4.4
LIG넥스원	1,078.0	10.7	49,000	-0.1	-18.1	-16.4	-18.1	19.4	13.7	1.6	1.5	8.7	11.4
태웅	433.2	3.1	21,650	-0.9	-8.6	26.2	11.9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이텍	237.5	4.6	8,800	-0.3	4.4	73.9	74.3	-366.7	52.1	2.5	2.5	-0.7	5.0
한국기본	284.0	16.3	6,460	0.2	-8.6	15.5	20.5	48.2	33.4	0.9	0.8	1.8	2.6

주: 카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TX조선 '생존'·성동은 '글쎄'…최종 보고서 5일 제출

삼정KPMG는 STX조선과 성동조선을 진단한 컨설팅 최종 보고서를 5일 정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짐. 정부는 이르면 8일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열고 두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할 계획으로 알려짐. STX조선은 회생가능성이 높은 편이나, 성동조선은 선박 일부를 제조하고 수리하는 등 불특공장이나 선박 건조 하위 업무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알려짐. (이데일리)

TMS Cardiff Gas stealthily slides up LNG newbuild tally

그리스 TMS Cardiff Gas는 삼성중공업에 17.4만CBM급 LNG선 1+1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이번 발주는 작년 연말에 현대중공업에 발주한 LNG선 2+1척을 뒤이은 주문으로 알려짐. TMS Cardiff는 발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올해 1월에 미국 Cheniere Energy와 LNG 장기운송계약에 용선될 것으로 알려짐. 당시 계약한 운임은 하루 63,500달러로 알려짐. (TradeWinds)

Edison closes in on small-scale LNG ships

에너지 업체 Edison은 소형 LNG선 장기용선을 위해 3개의 선사로 Shortlist를 구성했다고 알려짐. 다음달 말에 선사를 결정할 예정이며, 3만CBM급보다 더 큰 사이즈로 LNG선 1척을 발주할 것으로 알려짐. 해당 사이즈에서 한국과 중국 조선소가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짐. (TradeWinds)

Pantheon moves to VLCCs after LNG order at DSME

그리스 선사 Pantheon은 대우조선해양에 VLCC 2척을 발주했다고 알려짐. 선사는 알리지지 않았으나, Tier III로 건조돼 적어도 8,300만달러 이상으로 알려짐. 또 스크루버가 장착될 가능성이 높아 선가는 8,500~9,000만달러로 예상됨. 최근 대우조선이 수주한 LNG선 2척도 Pantheon의 자회사 Alpha Tanker & Freighter가 VLCC 발주와 함께 발주했다는 분석이 있음. (TradeWinds)

Talk of multi-ship order for LNG carriers goes round market

미국 세일가스 수출을 위해 발주를 검토하고 있는 LNG선이 현대중공업에 발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짐.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 9척, 현대삼호중공업에 3척을 발주하는 방안이 이번 주에 논의되며, 빠르면 2달안에 발주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현대중공업은 발주에 앞서 운송계약이 선행한다고 수주 가능성이 대해 언급을 피함. (TradeWinds)

Vale, 3세대 광탄선 발주한다

브라질 광산업체 Vale는 32.5만DWT급 VLOC를 발주하기 위해 조선사들과 건조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Vale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벌크선 시장의 선복 과잉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크루버를 장착한 친환경 3세대 VLOC를 발주할 것으로 알려짐. (선박뉴스)